

## 지옥 2

### 1. 개요

2024 년 10 월 25 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옥의 두 번째 시즌.

장르: 공포, 스릴러, 미스터리, 서스펜스, 오컬트, 다크 판타지, 코즈믹 호러, 디스토피아

공개일: 2024 년 10 월 25 일

회차: 6 부작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와우포인트, 미드나잇 스튜디오

연출: 연상호

각본: 연상호, 최규석

원작: 연상호, 최규석의 웹툰 《지옥 2:부활자》

출연: 김현주, 김성철, 김신록, 임성재, 문소리, 문근영 外

촬영 기간: 2023 년 6 월 1 일 ~ 2023 년 10 월 23 일

### 2. 등장인물

#### 2.1 주요 인물

##### 2.1.2. 시리즈 주요 인물

###### 2.1.2.1. 정진수

사이비 종교 새진리회의 창시자, 초대 의장, 또는 교주. 세간에 알려진 사이비 교주의 이미지와 달리,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에 사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 2.1.2.1.1. 시즌 1: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보육원(천사원)에서 성장했고, 살아갈 의지없이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며 20 살이 되길 기다렸다가 혼자 죽으러 떠난 티베트 고원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시연을 목격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지금껏 신의 자취를 쫓아왔다고 한다. 극중 시간으로부터 10 년 전(2012 년)부터 새진리회라는 신흥종교를 창설하고 '신의 의도'를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알려오고 있었지만, 세간으로부터 사이비 종교 취급당하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년 11 월 10 일 백주대낮에 합성역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주명훈이 정체불명의 괴물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게 되고, 곧이어 박정자의 시연까지 지상파로 전국에 생중계되며 삼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된다. 주명훈의 시연이 일어난 날 저녁, 신의 시연을 살인사건이라며 조사하러 찾아온 진경훈 형사와 대화를 나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자율성"이라는 진경훈에게 "형사님의 아내를 죽인 범인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해 침묵하게 만든다. 고지를 받고 상담받으러 찾아온 박정자에게 30 억원을 대가로 시연 현장을 생중계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중재하러 찾아온 진경훈, 민혜진과 대립하며 신의 의도를 재차 설파한다. 진경훈의 딸인 진희정을 포섭하여 진경훈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 희정의 눈 앞에서 소각로에서 화장시켜 시연을 당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박정자의 시연이 전국에 생중계되며 시연이라는 현상이 실제함이 증명되자, 정진수는 TV 인터뷰에서 "나는 신의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며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거하던 고시원을 찾아와 연락이 안 되는 희정을 찾던 진경훈을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으로 불렀다.

사실 정진수 역시 20 년 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진경훈에게 털어놓고, 자신은 살아오는 동안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으며 고지와 시연이 꼭 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에 가까운 것이라고 전말을 밝힌다.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폭동과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올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괴한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재해가 벌어진 이후의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재해가 아닌 신이 인간의 죄를 벌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를 선동했다. 이런 일은 벌인 경위는 극한의 공포에 의해 행동이 통제되어 올바르게 살 것이라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시연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고 희정이를 살인죄로 체포하여 원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님 딸을 지키기 위해 입 다물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맡긴 뒤 최후에는 나타난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 앓은 자세로 시연을 당한다.

티저 포스터에서 사자들 앞에서 앓은 자세로 불타 죽는 사람은 정진수였던 셈. 사실상 시연을 이용해 '신이 행하는 시연은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함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를 새진리회 광신도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의 죽음은 진경훈과 소도 조직원, 김정철 후임 의장만이 알고 있을 뿐, 세상에는 세계여행을 하며 새진리회의 교리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김정철이 정진수와 의 약속을 지켰는지 4년 뒤 건설된 새진리회 본부 시연장에는 정진수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있고, 정진수의 동상이 있는 등 우상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신급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1.2.1.2. 시즌 2

박정자와 마찬가지로 시즌 2에서 부활한다.

자신의 생전 과거의 현장에 있던 인물들이 되어 매번 지옥의 사자들에게 끊임없이 시연을 받는 지옥에 8년간 시달리다가 박정자에 이어 부활한다. 보육원 건물에서 빠져나와 헤메다가 우연히 나타난 듯한 천세형이 그를 발견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 보살펴준다.

천세형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기가 죽은 동안 새진리회의 행적, 고지받고 시연당했으나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아기의 존재, 박정자가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천세형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감시하다가 일부러 납치해 데려왔음도 알게 된다. 그 후 결박되어 차를 타고 소도에 넘겨지려 가던 중 천세형이 들려준 햇살반 선생님 오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박정자를 만나고자 천세형을 감언이설로 속인다.

결국 자신의 말에 넘어간 천세형 덕분에 화살촉의 리더 바람개비와 접선하고, 화살촉을 선동해 새진리회 대부흥회 현장에 난입한다. 김정철 의장이 화살촉들에게 집단 린치당해 사망한 후 그의 휴대폰에 이수경과의 통화내역이 수 차례 있었음을 발견하고, 새진리회의 대부흥회와 소도의 난입이 새진리회와 소도를 이용해서 통제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그녀의 계략임을 간파한다. 이수경을 협박 하고 알아낸 소도의 목표 차량에 화살촉을 잠복시켜 김성집과 민혜진을 제압하고 드디어 박정자와 만나게 되는데...

도망치려는 박정자를 붙잡고 자신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박정자는 자신의 지옥과 정진수의 지옥이 다르며 지옥의 사자는 정진수 본인의 안에 있다고 말한다. 박정자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정진수는 지하주차장의 볼록거울에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지옥의 사자를 또 한 번 보고 기겁했다가, 이후 아무 일이 없는듯 멀쩡한 거울 속 모습을 보고 안도한다. 그러나 곧 자신의 몸안에서 지옥의 사자의 몸으로 보이는 축수들이 퍼지며 처음에는 한 팔을, 그 다음엔 다른 팔다리를 장악하다가 이내 머리까지 뒤덮여 완전한 지옥의 사자로 변해버리고, 홀연히 사라진다.

정진수가 지옥의 사자가 되어 자취를 감춘 후 이수경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국적인 대규모 동시 고지가 내려져 세상은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인다.

#### 2.1.2.2. 민혜진

소도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새진리회 초창기부터 그들의 피해자를 변호하고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새진리회에서 시연 생중계를 제안받은 박정자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극중 사건에 말려들기 시작한다. 정자의 어린 자녀들을 밴쿠버로 도피시키는 등 그녀를 돕고자 형사 진경훈과 백방으로 노력하나, 정자의 시연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생중계되어 새진리회와 새진리회를 추종하는 화살촉의 세력이 힘을 얻고 만다. 이때 화살촉 리더 이동욱이 생중계에서 절을 하지 않은 소도 측의 모습을 저격하며, '신에게 반기를 드는 역적 분자'로 낙인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당한다. 노모를 모시고 캐나다로 도피하는 길에 법률사무소에 잠시 들르나, 이미 시연 사건 이후 사무실은 쑥대밭이 된 데다 곧바로 사무실을 습격한 화살촉 패거리에게 어머니와 함께 무자비하게 구타당한다. 이후 어찌저찌해서 겨우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가지만, 정작 그들을 알아본 의료진이 어떤 의료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고의로 방치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가족을 잃는 비극을 당한다.

그뒤 미래종교의 김정철 목사가 정진수 의장에 대해 제보를 하며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를 찾아간다. 이윽고 진수가 자신이 고지받았음을 고백한 녹취를 듣게 되지만, 사실 이는 진수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곧바로 현장을 습격한 화살촉 패거리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뒤 인근 도랑에 유기된다.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나 4년 뒤 2026년 시점인 4화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과거 화살촉에게 구타를 당했던 것 때문에 이마에서 눈가까지 커다란 흉터가 생겼다. 4년간 세상에는 사실상 사망자 취급으로 잊혀진 상태에서 자신의 소속이었던 사무소 이름을 딴 '소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고지를 받은 사람을 행방불명 상태로 처리시켜주거나 사고사로 위장해주는 등 새진리회에 맞서는 활동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었다.

배영재와 송소현의 아기 튼튼이가 고지를 받으며, 즉 새진리회의 교리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 다시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튼튼이의 시연을 생방송으로 내보냄으로써, 죄인들만 시연을 당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도 시연을 당한다는 사실을 밝혀 새진리회의 거짓 주장과 선동을 폭로하려 한다. 작중 자신의 은신처로 쳐들어온 화살촉 인원들과 격투를 벌여 때려눕히고 탈출하는데, 적어도 4년 전보단 비교가 안 되게 강인해진 모습을 보인다. 현재 새진리회가 득세하는 세상이 온 것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들이 득세하는 기점이 된 정자의 시연을 설마 진짜겠어 하며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진수의 정체를 더욱 빨리 세상에 알렸다면 현재의 세상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며 자책한다.

영재와 함께 새진리회 본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소현과 튼튼이를 빼내는데 성공하고, 새진리회의 추적을 피해 현재 화살촉을 탈퇴하다시피 한 동욱의 집으로 간다. 다만 그가 과거에 새진리회 추종자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화살촉 무리를 선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튼튼이의 시연 시간을 알고 새진리회에 전화를 하며 다시 광기에 휩싸이고, 소도 사람들을 죽이고 달려들자 소현과 튼튼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욱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다.

그 사이 시간이 다 되어 원래 계획했던 장소 대신 동욱의 집이 있는 허름한 아파트 중앙 마당에서 튼튼이의 시연이 시작된다. 원래 시연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차마 딸이 죽는 걸 볼 수 없던 소현이 튼튼이를 안고 죽음의 사자에게 내던져져 부상을 당한다. 시연이 끝난 후 영재와 소현이 튼튼이를 가운데 둔 채 끌어안고 새까맣게 탄 것을 보고 세 식구 모두 죽었다고 여기며 절규하는데, 놀랍게도 튼튼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동욱이 나타나 튼튼이를 죽이려는 걸 막으려다가 쓰러져 그의 칼에 찔릴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동욱의 시연이 시작되어 그 또한 죽고 만다. 뒤늦게 새진리회 직원들이 몰려오지만 시연을 본 주민들이 몰려들어 막아준 덕에 튼튼이를 안고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 택시를 탄다.

여담으로 본작의 등장인물 중 지옥의 사자들과 함께 1 화부터 6 화까지 다 나온 인물이다.

시즌 2에서는 2 화에 경훈과 그의 딸 진희정이 새진리회에게 납치당하기 직전에 두 사람을 구하며 등장한다. 버려진 유스호스텔 건물 지하를 아지트 삼아 동료 몇과 함께 배재현(튼튼이)을 숨겨둔 채 지내고 있다. 어린 재현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나 정자가 부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그녀를 구출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같은 소도 간부들끼리 생각과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것에 답답함과 회의감 또한 느낀다. 결국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자를 구출하는 작전을 밀어붙인다. 우여곡절 끝에 정자를 구해 가족에게 떠나보내고, 자신은 아지트로 돌아가 재현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난다.

극중 전투씬 담당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단봉을 기본 무기로 쓰는데, 시즌 2의 2 화에선 카 체이싱 도중 앞차를 들이받은 채 룸미러를 뽑아 액셀을 고정시킨 후 곧바로 앞유리창과 앞차의 뒷유리를 깨고 건너들어가 회정을 납치하려는 새진리회 잔당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컨트롤을 잃은 차가 건물 벽에 들이박히기 직전 회정과 차 밖으로 몸을 던져 쓰레기봉투 더미 위로 뛰어내리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 씬을 보여준다. 시즌 2에서의 액션 씬 강도는 이전 시즌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마지막 6 화의 폐차장 전투씬도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 공세에 밀린다 싶더니 유연하게 복싱 스타일로 전환한 후 상대방을 정신없이 몰아붙이다가 서브 미션으로 이행해 트라이앵글 초크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매력 포인트.

평가하자면 민혜진은 새진리회와 화살촉에 대항하여 고지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신념과 정의감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정작 본인도 남을 돕는데만 안주할뿐 세상을 안정시키겠다는 확실한 계획도 목표도 없이 현실을 외면한채 이상만 내세우는 독선적인 이상주의자로 볼 수 있다.

#### 2.1.2.3. 박정자

국내에 2 번째로 고지를 받은 사람으로 등장. 미혼모이며 부친이 서로 다른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자식들의 생일 축하에 기뻐하던 도중 천사로부터 5 일 후 15 시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는다. 그녀에게 고지 순간을 찍은 영상을 건네받은 새진리회 의장 정진수는 지옥에 가는 순간을 생중계하자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가 옳음을 증명코자 한다. 그러면서 대가로 30 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그녀는 소도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 민혜진을 만난다. 이후 혜진과 형사 진경훈의 도움을 받아 시연의 영향으로 자녀의 신상은 물론 자신의 신상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 새진리회와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진경훈의 동료 형사가 화살촉을 추종하면서 일가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해버리고, 그녀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식들의 신변까지 위험에 빠지고 만다.

다행히 혜진의 도움으로 두 아이는 무사히 밴쿠버로 망명하고, 자신은 남겨진 채 생중계에 알맞게 개조된 집에서 시연을 기다린다. 새진리회 신도들을 비롯하여 방송국, 경찰까지 현장에서 그녀의 시연을 기다리고, 천사가 죽을 거라 고지한 시간이 다다른자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시연을 받는다.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하자, 새진리회의 교세는 시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던 때보다 훨씬 크게 힘을 입기 시작한다. 4 년 후 그녀가 시연을 받았던 자택은 새진리회에 의해 리모델링되어 성지로 여겨졌고, 또한 사자들에 의해 불타버렸던 시신 위로 유리관을 씌워 사람들에게 전시한다.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 시즌 1 의 마지막 화면이 그녀의 시신이 보관된 전시관을 비추는데, 시신이 조금씩 흔들리며 주위의 잿더미들을 흡수하면서 형체를 갖춰가더니 사망한 그녀의 모습이 온전한 형태로 소생되어 거친 호흡을 하는, 그야말로 부활하는 장면을 끝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 원작에서는 없던 장면을 추가한 것인데 인터뷰에 의하면 드라마판의 흥행을 알 수 없었기에 일단 웹툰에서는 이 시점에서도 완결을 낼 수 있게 결말을 만들었고 드라마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흥행할 거라 감이 오자 시즌 2 의 떡밥으로 추가했다고 한다.

작중 묘사를 보면 자식들이 이부남매임에도 별다른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는데다가, 그녀 또한 목숨보다 자녀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성애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한 건 아이의 아빠들이고 그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막는 엄마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하긴 한다. 다만 이 죄의 범위가 해당 사건 이후 용서와 관용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나쁜 짓만 해도 죄를 지은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시즌 1 후반부인 4 ~ 6 화에서 끔찍한 고통을 동반한 시연 행위가 사실은 신의 천벌이 아닌 미스터리한 초자연적, 초현실적 재난이라는 해석의 새로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가 지은 죄가 무엇이나'보다는 '부활한 박정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주목받고 있다.

원작인 웹툰과의 연출 차이로 인해 캐릭터성이 바뀌었는데 웹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캐릭터였다면, 역할을 맡은 김신록 배우의 드라마판에서는 사뭇 날카로운 이미지로 시청자가 볼 때 '저 인물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인상을 주어 작품에서의 주 이야기 흐름과의 연결성이 더 강조되었다. 거기에 배우의 감정적이고 불안한 연기가 합쳐져 최규석 작가도 인터뷰에서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즌 1 결말에서 4 년이 흐른 시점인 시즌 2 에서는 부활 직후 4 년간 새진리회에 감금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정무수석인 이수경이 부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새진리회 의장 김정철을 만나고,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해듣는데, 새진리회 측은 그동안 그녀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부활 순간부터 줄곧 정신이 온전치 못한 탓에 막상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화살촉 무리들의 기세를 꺾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수경은 정철에게 부활한 그녀를 통해 새로운 교리를 전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래서 이른바 새교의 선포식이라는 제목의 정치적 행사가 계획된다. 이 발표를 기점으로 죄인이 아닌 부활자로 명명시키고, 심지어는 각 전문가를 고용하여 의상과 분장까지 컨설팅해서 그녀를 단상 위에 올린다. 새진리회가 짜고친 대사를 읊으려는 순간, 혜진과 소도가 그녀를 구출하고자 행사장을 뒤집고 진수의 계획에 휩싸인 화살촉 또한 본당으로 습격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구출 작전이 성공하고 혜진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식들에게 무사히 돌아간다.



부활 이후 다른 이의 죽음을 예언하는 능력이 생겼다. 다만 정확한 사망 날짜나 원인 등은 모른 채, 사망하는 순간의 단편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식이다. 또한 예측이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헤진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

시즌 2 정자의 대사로 유추해보았을 때 진수가 겪은 지옥과 그녀가 겪은 지옥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원작의 내용을 본다면 이 추측은 사실이 맞다. 진수는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타인의 삶을 살다가 시연을 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다가 부활했다. 그렇게 끔찍한 공포를 반복하며 겪다 부활한 탓에 부활한 후에도 자기가 본인의 인격인지 여전히 타인의 인격인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죽기 전의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지옥 속의 환각 같은 상황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겁을 먹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지옥의 사자가 보여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반면 정자는 지옥 속에서 시연은 받은 적도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은 은율과 하율의 엄마였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진수는 어째서인지 지옥의 사자로 변모한다. 정자가 지옥의 사자가 진수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닌 그의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정자는 진수와 같은 부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확실한 건 진수는 완전한 부활자가 아니었던 것, 혹은 애초에 시연을 진행하는 지옥의 사자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 결국 지옥의 원인은 인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후술하겠지만 박정자에게 생긴 예언 능력이 천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보면 박정자-천사, 정진수-지옥의 사자라는 구도가 나온다. 연상호 감독에 의하면 이 두 인물이 사자와 천사의 프로토타입 같은 모습을 한 건 떡밥이라고 한다.

#### 2.1.2.4. 진경훈

시즌 1 전반부의 주인공. 서울서북경찰서 강력반 형사이자 진희정의 아빠. 아내는 희정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살인범에게 살해당했다. 아내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박혀 있으며, 희정이 삶의 전부이다. 백주대낮에 주명훈의 시연이 일어나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새진리회에 대해 캐기 위해 의장 정진수가 주최한 집회를 찾아간다. 거기서 희정이 새진리회 집회 현장에 있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과 위험을 느끼고, 그 영향으로 진수의 말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고지를 받은 박정자를 소도법률사무소 민혜진 변호사와 협력하여 돕던 중

정자의 시연 며칠 전 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좌불안석하다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이 살해된 현장 근처 CCTV 에서 딸의 모습을 목격한다. 이어서 진수가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춘 옷장을 보고 분노하여 그의 고시원에 찾아가지만 허탕만 치고, 몰려든 광신도들에게 린치까지 당한다. 그러나 진수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로 인해 린치에서 벗어나고, 그가 보낸 주소로 이동해 진수와 대면한다.

자신의 말을 한 뒤 회정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제안에 진수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자신은 이미 20 년 전에 고지를 받았고 지옥의 사자들이 행하는 심판이 **신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정진수 자신이 그렇게 믿게끔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전말을 듣는다. 10 분 뒤 지옥에 간다는 그의 유언을 듣고 진수의 죽음을 목도한다. 집으로 돌아와 그의 말대로 기다리고 있던 딸과 재회하고 서로 포옹한 채 눈물을 흘리며 등장 끝. 이후 전개는 4 년 후로 이어지며, 새진리회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신도로 삼고 검경 못지않은 권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가 결국 진수의 죽음을 묻어둔 채 침묵을 선택했음을 암시한다.

첫 등장이 뻥질대고 커피만 타먹는 장면 때문이라 무능하게 비쳐지나, 이후 행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선 고시원을 돌파하여 기어이 진수의 방으로 들어가고, 진수가 정자의 죄를 자세히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확신이 그에게 없음을 간파해내는 등, 상당히 유능하고 끈기 있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진수의 그럴 듯하지만 궤변으로 가득찬 교리 속 허점을 콕콕 집어내 비꼬는 걸 보면, 지적 수준 또한 상당히 보인다. 작중 시점까지는 가족이 살해당한 트라우마로 일할 의욕을 아예 잃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유능함을 보여줄 만한 의지 또한 없었던 듯 하다.

시즌 2 의 1 화에서 정무수석 이수경과 새진리회 의장 김정철의 접촉으로 그의 존재가 다시 언급되며, 신분 세탁을 한 채 화살촉과 새진리회의 추적을 피해 시한부를 선고받은 회정과 함께 숨어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진수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보니, 진수의 행방을 찾는 새진리회의 목표물이 되어 회정과 함께 납치당할 뻔하지만, 때마침 혜진과 소도 사람들이 나타나며 위기를 면한다.

이후 대화에서 혜진이 진수가 20 년 전에 고지 받은 자란 사실을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걸 공개했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없으며, 회정의 세상은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회정이 믿음을 부수는 데 쓰고 싶지 않았다"고 답한다. 그리고 혜진에게 진수가 시연을 받은 장소를 알려준 후 소도가 제공한 은신처에 회정과 함께 머무른다. 이후 마지막 6 화에 딸의 임종을 지킨다.

이전 시즌에 비해 시즌 2 의 비중이 대단히 줄어들었는데, GV 에서 이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연상호 감독은 경훈 부녀의 서사가 이미 시즌 1 에서 완결돼서

결말을 내는 느낌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아무래도 시즌 3가 나와도 더 이상 출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1.3. 시즌 1 주요 인물

#### 2.1.3.1. 배영재

소속 NTBC (프로듀서)

가족 송소현 (아내), 배재현 (딸)

등장회차 시즌 1 4화 ~ 6화

배우 박정민

NTBC 방송국 소속 PD. 소현의 남편이며 이제 막 튼튼이라는 태명의 딸을 낳았다. 4회에 등장하며 새진리회의 다큐멘터리 캠페인 편집을 맡았다가 편집본을 본 유지 사제가 배경 음악을 지적하자 방송국을 외주 하청업체 취급한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동시에 시연을 당한 사람 집에 락커로 낙서하며 가족들을 폭행하고, 애가 자기 아빠를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지금 세상이야말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새진리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다. 이에 유지 사제가 지금이 범죄율이 급감한 세상이라 운운하자, 화살촉의 범죄를 들어 사람들을 겁주고 벌춤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지옥과 뭐가 다르냐고 쏘아붙이기도 한다.

이후 공동연출을 맡았던 동료 강준원이 갑작스레 이탈하여 새진리회 다큐를 혼자 다시 손보게 되고, 편집을 마치고 뒤늦게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던 중 강준원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수상함을 느낀다. 그러다 준원이 갖고 있던 사채업자 명함에 휘갈겨져 있던 양평낙시터 주소를 떠올린다.

양평낙시터에서 시연을 기다리고 있던 준원을 찾아내고 극한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지만, 결국 준원의 시연을 눈앞에서 목격한다. 곧이어 소도 직원들이 들이닥치는데, 이때 자사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등장하는 공형준 한국대 교수가 마취 주사를 놓으며 오늘 본 광경은 그냥 잊으라 충고한다.

마취에서 깨어난 뒤, 드디어 오래동안 기다리게 했던 아내 송소현의 산부인과로 찾아간다. 하지만 소현으로부터 아기 튼튼이에게 고지가 내려지는 영상을 건네받고 충격에 휩싸인다. 이윽고 자신이 전날 밤 양평낙시터에 소도 사람들과 함께 왔던 교수를 떠올리고, 그를 찾아가 **새진리회와 고지에 대한 진실**을 듣는다. 그리고 튼튼이가 고지를 받는 영상을 교수를 비롯한 소도 인원들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뒤 세상에서 잊혀진 민혜진 변호사를 대면하는데, 새진리회의 교리를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기의 시연을 생중계하자는 그녀의 요청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소도와 새진리회와 다를 게

뭐냐며 폭언을 퍼붓는다. 그러다 이후 교수에게 그의 딸이 눈앞에서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한 사연을 듣는다. 이튿날 아침 화살촉에 의해 교수가 살해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혜진에게 전화를 받아 새진리회에 발이 묶인 소현과 튼튼이를 빼내고자 함께 새진리회 본부로 향한다.

혜진이 마련한 은신처에 도착하며, 소현과 상의 끝에 결국 튼튼이의 시연 생중계를 허락하고 망명 준비를 한다. 시연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 前 화살촉 리더 이동욱이 메시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소도 직원들을 습격해 살해한다. 자신은 혜진이 건네줬던 테이저건으로 동욱을 일시적으로 물리치지만 곧 추격당하여 난투 끝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기절한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자들이 나타나 소현이 튼튼이를 안은 채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자들에게 저항해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고 소현과 함께 몸을 묶어 그 틈에 튼튼이를 보호하려 한다. 끝내 함께 시연을 당하며 소현과 불타버리는데, 놀랍게도 둘 사이에 있던 튼튼이는 무사했다. 부모(타인)의 희생으로 아이(시연 대상자)를 지켜낸 것으로써 고지를 받은 대상자가 살아남은 첫 사례이며, 현장의 목격자들과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연 대상자가 갓 태어난 아이라는 점에서 새진리회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새진리회의 교리 및 신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의문과 반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다.

시즌 2 에선 의외로 소현과 함께 광신도들 중에서도 광신도들인 화살촉의 교리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화살촉이 부부의 희생을 "신의 의도를 믿지 않고 비웃은 죄에 대해 하늘이 벌하고자 일부러 죄 없는 아이에게 시연을 고지했고, 이 둘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 회개해 시연을 받으며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안 되지만 시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겐 그럴 듯하게 들리는 식으로 왜곡해 선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행적을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되는 고인드립.

#### 2.1.3.2. 송소현

가족 배영재 (남편), 배재현 (딸)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원진아

영재의 아내로 극중 4 화에 첫 등장.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기 튼튼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가기 어렵겠다는 영재에게 핀잔을 주고 당장 오기 어렵다면 동영상 찍어 보내주겠다고 신생아 면회 시간에 몰래 폰을 들고 들어간다.

영재에게 보내줄 영상을 찍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튼튼이에게 4일 후 지옥에 갈 것이라 고지하고, 그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다. 이후 병실에서 नी이 나간 채 뒤늦게 온 영재에게 해당 고지 영상을 보여주고, "갓 태어난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죄인을 낳은 거냐"며 오열한다.

영재가 공형준, 민혜진과 만남을 갖고 돌아왔을 때, 칭얼대는 튼튼이를 달래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 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날 30년 만에 만났으나 경황이 없어 그때 위자료를 못받았는데 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런 어머니도 있는 거라는 영재의 말에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하며 저주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다짐했었다고 털어놓는다.

다음날, 영재가 출근한 사이 새진리회 본부에 찾아간다. 새진리회에 찾아갔을까 걱정하는 영재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유지 사제에게 자신의 아기가 고지를 받았음을 털어놓고 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지만 새진리회는 튼튼이를 빼앗아 가려 하고 다행히 그때 혜진과 소도 인원들이 나타나 난동을 일으킨 덕에 튼튼이를 다시 찾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혜진이 수배한 은신처에서 결국 튼튼이의 시연을 중계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망명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동욱의 배신으로 튼튼이의 시연 중계는 물거품이 된다. 동욱을 피해 달아나다가 고지받은 시간이 되자 결국 은신처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기가 고지받은 사실을 알린다. 공개 시연은 허락했지만 정말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튼튼이를 지켜 안고 이리저리 피해 도망친다. 마침내 영재와 함께 튼튼이를 감싸안아 보호한 채 시연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는다.

#### 2.1.4. 시즌 2 주요 인물

##### 2.1.4.1. 천세형

가족 오지원 (아내)

등장회차 시즌 2 1화 ~ 4화

배우 임성재

화살촉 햇살반 선생 오지원의 남편. 왼쪽 얼굴에 흉터가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부부의 삶을 살아왔으나, 아내 오지원이 정진수의

광신도가 되고 이내 시연에 동참하다 죽는다. 그 때문에 정진수에게 커다란 증오를 품게되고, 소도와 손을 잡았다. 정진수의 부활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정진수 부활 후 이송 과정에서 그에게 속아 결국 소도를 배신하고 그를 구한 뒤 아내의 계정을 통해 화살촉의 바람개비와 연결시켜준다.

그러나 정진수의 의도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창한 의도가 아니라 부활자 박정자를 만나는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정진수에게 버림당한다. 종국에는 신의 의도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절규하다 정진수의 명령을 받은 화살촉들의 흥기에 척살당한다. 정진수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모두 잃고 본인도 철저히 이용만 당하다 죽게 되는 불쌍한 인물.

하지만 다르게 보면 오지원이 정진수와 화살촉에게 점점 동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유약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정을 박살낸 정진수에게마저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원수에게 이용만 당하는 등 자기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탓에 이런 결말을 초래해버린 감이 있다.

#### 2.1.4.2. 이수경

소속: 대통령 비서실

등장회차: 시즌 2 1화 ~ 6화

배우: 문소리

대통령의 정무수석. 이성적이고 유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다. 화살촉에 의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지속되자 새진리회와 소도를 이용해 공권력을 바로세우려 한다. 새진리회나 시연 현상에 대해선 존중이나 경외심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김정철 의장 앞에서는 대놓고 '미쳐날뛰는 사이비보단 가만히 말 잘듣는 사이비가 나으니까'라며 비웃기까지 한다. 언제 어디서나 보온 텀블러를 들고다니며 음료를 마시는 버릇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권력을 회복하려는 인물처럼 보였으나 후대를 위해 미쳐버린 세상을 제어할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도 구축해보려고 노력하는 인물. 소도의 김성집이 한 말에 의하면, 세상이 정상일 때는 원칙주의자인 훌륭한 정치인이었으나 이제는 변했다고 한다. 자기가 예전에 민혜진을

좋아해서 자기네 당의 비례대표로 공천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아 민혜진과도 인연이 있는 듯하다.

여타 매체의 높으신 분들과 달리 새진리회와 공적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도 정장보다는 등산복 차림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연상호 감독은 GV에서 여기에 대해 시스템을 지키려는 사람이란 점에서 변화가 없는 산을 좋아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모든 일이 끝나고서 뒷수습을 지시하던 중 천사에게서 2년 후 19시에 사망하여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듣게 된다. 그외에도 전국에 걸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시민들에게 대규모로 고지를 내리며 혼란이 벌어진다.

시즌 1이 정진수가 벌리는 판이라면 시즌 2는 각 세력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이수경의 판으로 볼 수 있다. 연상호 감독도 이런 이수경의 캐릭터에 주목하였다고 하며, 이동진은 문소리의 연기력과 대사전달능력을 호평했다.

## 2.2. 새진리회

### 2.2.1. 김정철

소속: 미래종교 (목사 / 시즌 1 3화), 새진리회 (의장 / 시즌 1 4화 ~ 시즌 2 6화)

등장회차: 시즌 1 3화 ~ 6화, 시즌 2 1화 ~ 6화

배우: 이동희

정진수의 뒤를 이은 새진리회 2대 의장. 생김새나 헤어스타일, 안경, 같은 사이비라는 점에서 파 크라이 5의 조셉 시드를 연상케 한다. 특히 정진수가 일반인과 다른 점을 가장 먼저 알아내고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점, 또 신비적 이미지의 교조와 다르게 사회 전면에서 선전·선동을 한다는 점에서 20세기 소년의 만조메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이나 이만희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 작중 행적:

본래 ‘미래종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목사였다. 2004년 천사의 예언을 들은 정진수를 인터뷰하면서 그가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다.

박정자 시연 사건 직전 민혜진에게 인터뷰가 수록된 미래종교의 책자를 보내주었는데, 이걸 보고 달려온 민혜진에게 정진수의 인터뷰 녹취록을 들려준다. 그러나 김정철은 이미 민혜진을 제거하고 정진수가 시연당한 사실을 감춰주는 대가로 정진수의 새진리회 의장직을 물려받는 거래를 한 상황이었고, 민혜진은 김정철이 불러모은 화살촉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한다. 이후 새진리회의 새 의장으로 취임한다.

정진수와 다르게 사상적인 동기나 신념보다는 새진리회를 단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을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초월적인 자로 점차 세우더니,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청마저 새진리회 교단 영향 하에 들어오자 탐욕과 권력욕이 더 폭주하며 아예 자신을 신격화시켰다.

이후 고지 받은 아기의 공개 시연을 막기 위해 이동욱에게 "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꼬드기는 등위기의 순간에도 감언이설로 상대를 기만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을 뿐 한종교의 교주라는 리더의 역할을 맡기에는 굉장히 무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장이 된지 4년이 다 되도록 교리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허술했기에 새진리회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 **최후 :**

시즌 2에서는 튼튼이 사건으로 화살촉이 득세하고 새진리회의 몰락이 가속되며 신도도 잘 안 모이고, 본인은 대낮에 거리에서 화살촉 무리에게 린치당하는 등 큰 곤욕을 겪고 있다.

졸렬한 인간성은 그대로인지 린치당하는 자기를 구하러 온 운전기사를 화살촉들에게 던져준 후 혼자 내빼는 추태를 보이는 건 덤. 사법질서마저도 공격하고 미친 듯이 날뛰는 화살촉을 제압하고 새진리회를 대신 밀어 질서를 회복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손을 잡게 된다. 정무수석 이수경의 제안대로 새교의 선포식을 열어 박정자에게 새로운 교리를 담은 대사를 암기시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살촉에게 빼앗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소도와 화살촉 양쪽 모두 새교의 선포식날 박정자를 데려가려 나서면서 계획은 엉망이 된다. 화살촉에게 쫓기다가 이수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제 더는 김정철이 필요없다고 생각한 이수경에게 가차없이 토사구팽당해서 화살촉 무리에게 잡히게 된다.

이때 부활한 정진수와 대면하고, 정진수가 시연을 받은 부활자라는 것을 그자리에서 폭로하나 씨알도 안먹히고 결국 맞아죽는다. 전에 박정자가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 같자 박정자를 찾아가 자기에게서 뭐가 보이냐고 물었고, 박정자는 "봉황 비슷한 새"라고 대답했다. 김정철은 찹찹해하면서도 그냥 넘겼는데, 맞아죽기 직전 천장에 그려진 두 마리 봉황을 보고서 박정자가 정말로 자기 죽음을 예언한 걸 깨달곤 실소하며 사망한다.

## 2.2.2. 유지 사제

소속: 새진리회 (사제)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류경수

신의 원칙도 무시하고, 신의 의도도 무시한 채, 누굴 보고 사기꾼이라고.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시연을 피한 송소현의 아기와 민혜진 변호사를 데려가려는 것을 보고 '거짓말쟁이'들이라며 막아선 노인을 폭행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신이 아무 원칙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종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죄인들이 날뛸 거라고. 하하하하! 그 죄인들의 피해자들이 니네들을 원망할 거야. 니네들은 죄인들이 죄를 짓게 한 방조자들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신의 원칙도 모르고, 신의 의도도 무시한 채...!

김정철의 하수인이자 새진리회의 행동대장. 지옥 후반부인 4~6 화의 메인빌런으로 등장한다. 눈썹미가 상당히 좋고 영민한 스타일로 김정철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비밀결사 '소도'를 일망타진하려 한다. 드라마에서는 고지를 받은 신생아 튼튼이가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남고 사자들이 살아남은 아기는 죽이지 않은 채 그냥 사라지는데, 민혜진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지자 이내 정신차리고 신의 집행을 방해한다며 경찰에게 저 여자를 잡으라고 악을 쓰다가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의 "그만해라 이 사기꾼아"라는 발언에 이성을 잃고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한다.이에 보다못한 경찰들이 그를 폭행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운 뒤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신의 원칙이 없어진 세상은 멸망한다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간다.

유지 사제가 노인에게 폭력을 가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은 의미 있는 장면이다. 민혜진이 말한 "세상을 다시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는" 첫 번째 장면이다. 비록 새진리회가 언론과 공권력에 강한 입김을 볼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돌아다니는 정보 자체를 통제하고 탄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지 사제의 이 광신도적 폭행은 엄연한 자충수였고,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겉으로만 굴복하고 순응할 뿐 새진리회와 화살촉의 악행에 반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 2.2.3. 사청 사제

소속: 새진리회 (사제)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배우: 차시원

유지 사제와 마찬가지로 김정철의 하수인. 다만 유지 사제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보아 부하 혹은 더 밑의 계급으로 보인다. 유지 사제에 비하면 날카로운 모습은 부족한 편이라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다가 유지에게 갈굼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작중에서는 화살촉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마지막 화에선 사자들의 시연에서 살아남은 튼튼이를 보고 새진리회 시대의 종말을 인지한 듯 체념한 표정을 지었고, 경찰에게 연행되는 유지 사제를 외면한 채 남은 사제들을 이끌고 철수한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던 유지 사제랑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애초에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새진리회에 가담한 것은 아닌 듯하다.

### 2.2.4. 의장단

소속: 새진리회 (의장단)

등장회차: 시즌 1 5 화 ~ 6 화

배우: 장하란, 남진복, 김미수, 한혜수, 김정호

새진리회의 간부급인 의장단 사제들. 일반적인 장로회의 장로들과 비슷하며 의장 김정철과 함께 교단의 대소사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격적인 등장은 고지받은 갓난아기의 등장으로 교단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유지 사제가 다급히 의장단 회의를 열면서부터이다. 아기가 고지를 받은 것에 대해 원죄론을 비롯해 갖가지 의견을 내보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화살촉의 리더였던 이동욱이 김정철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고지

받은 시간이 아기의 시연시간 5분 뒤라고 알려오자 이동욱을 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죽게 되는 메시아로 명명하고 이를 이용해 상황을 타개하려한다.

작중에서는 이들도 김정철과 전혀 다른 게 없이 물욕에 찌든 사이비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묘사된다. 소도를 파해치기 위해 김정철이 유지사제에게 권능을 부여할 때도 단순히 이런 동작이 유지한거 같으니 바꿔달라는 식의 진지하지않고 의미없는 일이나 수행하고 있었으며, 튼튼이가 고지를 받은 것으로 인해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도 교리 변경에 따른 의견 충돌이 커져 나중엔 교리라는 주제도 어디로 내버렸는지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당신이 원죄론을 알기나 하느냐"면서 초딩 수준 말다툼을 벌이는 등 근엄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

#### 2.2.5. VIP

얼굴에 흰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들. 새진리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고 시연을 관람한다. 이들이 새진리회의 간부들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5화에서 여의도 새진리회 본부 내 스튜디오에서 시연 방송을 중계할 때 똑같은 양복과 가면을 쓰고 1열에 나란히 앉아 시연을 관람하는 모습으로 나와 뒤에서 민트색 항공점퍼를 입고 서 있는 새진리회 간부들과는 별개의 인물들이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의 회상씬에서 등장한다. 대부흥회에서 등장하는 부활자 박정자 양 옆으로 VIP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정장차림으로 착석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가면은 쓰고 있지 않다.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가면을 쓰고 쇼를 관람하는 갑부들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의 오마주라는 오해가 있는데, 웹툰판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30억이 저기서 나왔냐는 대사도 동일하다.

#### 2.3. 화살촉

시즌 2에 와서는 이동욱에 이어 바람개비가 리더가 되었고 그 세력이 커져 꽤 커다란 부흥회를 열 정도까지 성장했다. 배영재와 송소현의 희생으로 아이가 살아남은 일을 '시연이 곧 신의 은혜로운 개입이며 속죄와 참회의 기회'라고 해석하고 기리고 있으며, 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시연에 단체로 뛰어들어 '정죄의 불꽃'에 함께 불태워지는 시연 동참 행위를 추구한다. 물론 자살과 다를 바 없으나, 화살촉 신도들은 이 행위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발끈한다. 시연 당하는 죄인과 함께 죽고자 "덮쳐"라는 말을 사용하고, 유언으로 결연한 의지를 담은 광기 어린 문구를 말하고 죽는다. 마치

자살특공대 마냥 달려들며, 이렇게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 이렇게 시연에 동참하고 난 뒤에는 분살된 신도들의 사체가 엉켜고 쌓여서 정말 끔찍한 광경으로 묘사된다.

시즌 1 때와는 다르게, 새진리회에게 상당히 적대적으로 변했다. 새진리회 의장 김정철의 주장에 따르면 배영재와 송소현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아기에 대한 신의 의도 해석을 새진리회에서 먼저 내놓았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새진리회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연에 직접 동참하는 화살촉들의 과격한 행동이 더욱 세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김정철을 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사이비 교주로 여기며 백주대낮에 그가 탄 차를 습격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진수가 지옥의 사자로 변모해 버린 것도 모자라 수만 건 이상의 전국적인 대규모 동시 고지가 내려지게 되었으니, 화살촉은 의욕 상실 +경찰에게 검거 +대다수가 시연 고지를 받으면서, 와해되어 사라져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살촉에 소속된 사람들은 초대 수장 이동욱의 방송용 코스튬을 따라하며 모두 얼굴과 외관에 기괴한 분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폭력적인 집단인 만큼 그들의 활동이 새진리회에게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시연받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법적으로 따질 죄목이 없는 새진리회와 달리, 화살촉은 공형준과 김근배를 분살시키고는 신의 계시에 반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멋대로 죽여버렸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기자들이 새진리회에 몰려와 여태까지 있던 시연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시연들이 맞냐고 따져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진수는 화살촉이 자신의 교리를 추종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기도 했는데, 극중 초반 진경훈으로부터 화살촉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그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신의 의도를 전하는 것. 그거 말고는 저희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정진수의 발언이 진심인지 또는 위장성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진심으로 우려나온 말을 했다고 해서 정진수가 화살촉이 날뛰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2.3.1. 이동욱

소속: 틱톡 TV (인터넷 방송인), 화살촉 (초대 수장)

등장회차: 시즌 1 1 화 ~ 3 화, 6 화

배우: 김도윤

새진리회를 광적으로 신봉하는 화살촉의 우두머리이자 선동꾼. 1~3 화 시점에서는 해골 모자를 쓰고 온 몸에 형광 물감을 바르고서는 틱톡 TV 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고지를 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털이 방송을 하고, 그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대로 아님 말고식의 모함을 하는 사이버 렉카로 나타난다. 방송을 하면서 화를 내는 등 감정을 표출할 때 키보드 샷건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송의 네임드 시청자인 홍은표(진경훈의 동료 형사) 등 정보력이 우월한 몇몇 시청자들이 신상을 계속 전달하면서 시연 대상자를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소도법률사무소 등 새진리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테러도 선동한다.

3 화 이후로등장이 없다가 6 화에서 피폐해진 최종 보스로 재등장. 처음에는 민혜진 변호사와 배영재 부부의 폭로를 도울 방송인으로 소개되지만, 카메라가 방안의 해골머리 분장을 비추며 그때 그놈임을 확인해준다. 정진수의 시연과 김정철의 의장 부임 이후인 2023 년 어느 날 방송이 끝난 직후 “3 년 뒤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고는 “새진리회가 말하는 정의는 모두 지키면서 살아온 내가 왜 지옥에 가는가?”라는 의문이 들어 신앙을 버리고 피폐해졌으며, 나중에는 배영재 부부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아기의 시연 예정 시간이 자기 시연 예정 시간 불과 5 분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정철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다. 어떻게든 아기의 시연을 덮고자 하던 김정철은 이동욱을 쫓 생각으로 “당신은 신이 실수로 아기를 죽이는 걸 만회하기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다”라고 아침한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지를 받았다고 억울해 하던 이동욱은 메시아라는 말에 신의 의도를 이해한 듯이 다시 광기에 휩싸인다. 그리고는 이런 영광을 사제놈들에게 줄 수는 없다면서 기습적으로 소도 대원들을 습격해 죽이고는 민혜진과 배영재 일가까지도 모두 죽이려 시도하지만 민혜진에 의해 저지당한다. 이후 부부의 희생으로 아이가 살아나자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황해다가 갑자기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하지만 역시 민혜진에 의해 저지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욱의 시연 시간이 되자 사자들이 다시 나타나 잔인한 시연으로 죽음을 맞는다.

이 인물의 인터넷 방송 장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기괴한 분장이나 고성방가 등 지나치게 조악하고 1차원적이면서 손발을 오글거리게 만드는 어색하고 과장된 연기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시청을 포기할 정도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외 SNS에서도 너무 시끄럽고 기괴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감독은 의도한 연출이자 프로파간다성 스피커의 리얼한 표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모습의 시각적 실체화로 인해 불쾌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기사 참고로 미국 더빙은 이동욱의 광기를 조금 중화했다면, 일본 더빙은 오히려 광기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신상을 끈질기게 잘 파헤치고 그들의 가족이나 거주지까지 털어서 화살촉 테러 행위를 선동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상은 물론 얼굴까지 분장으로 가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이버 렉카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들의 내로남불 적인 모습을 참고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키보드를 내리치며 키보드 샷건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는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내려친 키보드 샷건이 오히려 컬트적인 인기로 높아지는 인터넷 방송 문화를 풍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 2.3.2. 바람개비

바람개비와 함께 광신도들을 이끄는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 평범한 인간이 정진수가 만들어놓은 세상 아래 어떻게 광신도가 되고 파멸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

원래는 천세형의 아내이자 유치원 교사로 평범하게 살았다. 2022년 어느 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주명훈의 시연 뉴스를 접하며 그것에 처음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진수의 설교에 점차 심취되더니, 박정자의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후로는 광신 상태에 빠져든다. 튼튼이(배재현) 사건에 있어 화살촉이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자 그 상태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며 시연 현장에 화살촉 무리와 함께 뛰어들었다가 오른쪽 팔을 잃는다. 하지만 같이 시연에 뛰어든 다른 화살촉들은 타죽었는데 자신은 한쪽 팔만 잃고 살아남은 일로 신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로 유명세를 얻어 광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사가 된다. 손목을 잃은 후로도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매일같이 방안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자신이 또 죄를 지은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시연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는다.

### 2.3.3. 오지원 (햇살반 선생님)

소속: 햇빛유치원 (햇살반 담임), 화살촉 (단원)

가족: 천세형 (남편)

등장회차: 시즌 2 1 화 ~ 3 화

배우: 문근영

바람개비와 함께 광신도들을 이끄는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 평범한 인간이 정진수가 만들어놓은 세상 아래 어떻게 광신도가 되고 파멸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

원래는 천세형의 아내이자 유치원 교사로 평범하게 살았다. 2022 년 어느 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주명훈의 시연 뉴스를 접하며 그것에 처음 몰입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진수의 설교에 점차 심취되더니, 박정자의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후로는 광신 상태에 빠져든다. 튼튼이(배재현) 사건에 있어 화살촉이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자 그 상태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며 시연 현장에 화살촉 무리와 함께 뛰어들었다가 오른쪽 팔을 잃는다. 하지만 같이 시연에 뛰어든 다른 화살촉들은 타죽었는데 자신은 한쪽 팔만 잃고 살아남은 일로 신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로 유명세를 얻어 광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사가 된다. 손목을 잃은 후로도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매일같이 방안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자신이 또 죄를 지은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시연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는다.

## 5. 소도

### 5.1. 공형준

소속: 한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밀단체 소도 (대원)

가족: 공연재 (딸)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5 화

한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소도의 일원. 딸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시작으로 소도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JTN 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상인 '증발'에 대해 사건을 논하는 것으로 첫 등장하며, 평소 새진리회에 불만이 많은 배영재가 그를 눈여겨본다. 이후 배영재의 사수인 강준원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시연 예정 장소로 찾아온 강준원을 증발시키다가 배영재와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이후 배영재가 한국대 교수실로 직접 찾아와 아기가 고지를 받았다고 소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부터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 주고, 아기의 시연을 공개하자는 민혜진의 말에 반발하는 배영재에게 과거에 천사에게 자신의 딸을 잃었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바꾸게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소도 조직원 김근배의 배신으로 덜미를 잡히게 되고, 자신의 뒤를 밝은 새진리회로 인해 제압당한 뒤 화살촉 대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용 불가마에 산 채로 넣어져 분살(焚殺)당한다. 《지옥》 시리즈 세계관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초자연 현상 ‘고지’에 대한 인류의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 5.2. 김근배

소속: 비밀단체 소도 (대원)

가족: O 수정 (아내)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5 화

배우: 고동형

시연된 후 새진리회로부터 '국내 16호 죄인'으로 명명된 여자 사채업자의 아들로, 비밀단체 소도에 가담했다. 강준원의 시연을 숨기기 위해 강준원이 사채를 써서 밀항했다는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다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부자연스럽던 사채업자라는 의심을 사서 결국 새진리교에게 발각된다. 본인에게 행해지는 고문은 견뎌냈지만 아내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지자 결국 소도를 배신하고 핵심 간부인 공형준의 신상을 붙여버린다. 이후 화살촉에 의해 공형준과 함께 분살당하고 시신이 내걸린다.

## 5.3. 김성집

시즌 2의 신규 인물. 시즌 1 이후로 소도도 규모가 커져서 여러 지부로 나뉘어 활동하는 중인데 그 중 남부 지부의 리더를 맡았다. 또 다른 직업은 태권도 관장이며 자식도 있다. 민혜진과 다른 지부 리더들이 의견 충돌을 빚을 때면 중재한다. 민혜진을 소도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존중하기는 하지만, 민혜진이 자기 신념과 원칙을 중요시하며 무모하게 움직이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민혜진이 다른 리더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자를 구출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자기도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구출작전을 세운다고 하며 적극 나선다. 알고보니 몰래 이수경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돕기도 하고 이용도 하는 사이였고, 이수경에게서 박정자를 구출하라는 제안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수경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아이들에게 그나마 조금은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수경의 외침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받아들인다.



후반부까지 민혜진을 도와 박정자를 구출하지만 박정자를 구출한 뒤 어느 폐차장에서 민혜진에게 총을 쏘며 적대 관계로 돌변한다. 박정자를 살려두면 앞으로 새진리회와 화살촉이 서로 박정자를 데려가 이용하려 할테니 죽여야 한다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새진리회도, 화살촉도 아닌 자기 신념만 지키려는 민혜진이라고 일갈을 날린다. 민혜진과 격렬히 싸우는데 태권도인답게 발차기와 무릎차기로 공세를 퍼붓는가 싶더니 복싱 스타일로 전환한 민변에게 묵사발이 나게 두들겨맞다가 기습적인 서브미션 이행 트라이앵글 초크에 걸려 기절하고, 민혜진은 수갑으로 김성집의 손목을 폐차에 연결하고 열쇠를 손이 안 닿는 거리에 두고 떠나버린다.

## 6. 주변 인물

### 6.1. 민혜진의 주변 인물

#### 6.1.1. 민혜진 모

#### 6.1.2. 박영호

### 6.2. 진경훈의 주변 인물

#### 6.2.1. 진희정

#### 6.2.2. 홍은표

#### 6.2.3. 반장

### 6.3. 배영재의 주변 인물

#### 6.3.1. 배재현

출생: 2026 년 (0 세)

가족: 배영재 (아버지), 송소현 (어머니)

등장회차: 시즌 1 4 화 ~ 6 화, 시즌 2 2 화, 6 화

배우: 시즌 1 서아린, 시즌 2 오은서

배영재와 송소현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기. 태어나고 얼마되지 않아 천사의 고지를 받았으며, 해당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태명은 '튼튼이'이고 신생아라 정식 이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송소현의 아기'라고 불리면서 고지를 받는다.

부모의 동의 하에 민혜진은 출생한 지 며칠 밖에 안 되어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한 아기마저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방송으로 퍼뜨렸고, 새진리회는 이 아기의 시연으로 자기네 존립기반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시연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 든다. 이 와중에 이동욱이 미처날뻔 탓에 원래 시연을 생중계하려던 장소로 가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동욱의 집이 있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중앙 마당에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알리는 가운데 시연이 행해진다. 사자가 나타나 아이를 공격하려하지만 부모인 배영재와 송소현이 아이를 보호하고 대신 희생한 덕에 목숨을 건진다. 이로 인해 고지를 받았음에도 살아남은 최초의 사례가 되어 존재만으로도 향후 수많은 떡밥의 중심에 선 인물이 되었다.

시즌 2 엔딩 이후 쿠키영상에서 드라마에서만 공개된 사실이 있는데, 배재현은 시연에서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시연을 당해 사망했다가 곧바로 부활한 최초의 부활자였다. 박정자의 부활처럼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추가 설정이다.

시즌 2에서는 배재현이란 이름으로, 버려진 유스호스텔 건물 지하의 소도 아지트에서 민혜진 및 다른 몇 명의 소도 멤버들과 살고 있다. 안전 문제도 있고, 시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를 찾기 위한 연구 대상이기도 해서, 철저히 외부와 격리된 채 살고 있다. 같이 지내는 사람 중 민혜진을 특히 좋아한다. 소도 멤버들은 배재현의 생존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편집증적으로 감시하는데, 산책을 나갔다가 주워온 장난감을 몰래 꺼냈을 때조차 그게 무엇인지 캐물으며 억박지를 정도였다. 민혜진은 소도의 이러한 방침에 점차 염증을 느끼면서 충돌하다가 결국 시즌 2 결말부에 배재현과 몰래 도주하게 된다.

추측건대 배재현이란 이름은 아빠 이름(배영재)과 엄마 이름(송소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 같다. 민혜진이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아이 부모를 기리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듯하다

#### 6.3.2. 강준원

#### 6.3.3. 국장

#### 6.3.4. 후배

#### 6.4. 박정자의 주변 인물

##### 6.4.1. 박은율

##### 6.4.2. 박하율

#### 7. 시연을 당한 자들

##### 7.1. 주명훈

##### 7.2. 김진구

##### 7.3. 송현섭

##### 7.4. 김영석

##### 7.5. 공연재

##### 7.6. 정경석

##### 7.7. 이철윤

등장회차: 시즌 2 4 화 ~ 5 화

배우: 임정선

시즌 2 에 등장. 극중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여사님'이라고만 부른다. 민혜진과 김성집이 박정자를 구하려고 새교의 선포식에 갔을 때, 김성집과 미리 약속하고 정혁상과 같이 나타나 합류했다. 이철윤이나 정혁상이나 착하고 양전해 보이기만 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안 보여서, 민혜진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구출작전을 하는 거냐며 어이없어했다. 알고보니 고지를 받아 곧 시연을 당할 상태로, 시연으로 구출작전을 돕고자 왔던 것. 시연이 임박하자 새교의 선포식 앞자리로 걸어가 박정자와 김정철 바로 앞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행사는 중지되고 대소동이 벌어진다. 원래는 이리저리 도망쳐 최대한 소동을 길게 끌며 민혜진과 김성집이 구출작전을 펼 시간을 벌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화살촉들이 같이 시연당하겠다고 달려드는 통에 바닥에 쓰러져 시연을 당한다.

##### 7.8. 정혁상

등장회차: 시즌 2 4 화 ~ 5 화

배우: 오치운

시즌 2 에 등장. 민혜진과 김성집이 박정자 구출작전을 펼치려 할 때 이철윤(이 여사)과 같이 와서 합류했다. 이철윤처럼 그 날 시연당할 사람이었고 그 점을 이용해 소동을 일으켜 구출작전을 도우려했다. 그러나 그 전에 화살촉들에게 붙잡혀 새진리회 본부의 정진수 대리석상 앞에서 온갖 수모 겪는 광경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결국 시간이 다 되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광경까지 생중계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성집이 미리 정혁상의 가족을 피신시켰다고 하니 가족만은 안전할 것이다.

## 8. 기타

### 8.1. 김창식

### 8.2. 김광진

### 8.3. 택시운전사

## 9. 초자연적 존재

### 9.1. 지옥의 사자들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저승의 괴생명체들.

외관은 마치 머리카락을 뺀 듯한 섬유질 덩어리의 검은 예티로 보인다. 쿵 하는 3 번의 굉음과 함께 시공간을 뚫고 등장하고, 고지를 받은 자에게 지옥의 고통을 미리 시연해주려 죽일 듯이 때리거나 찢은 후 초고열로 불태워 죽여버린다. 보통은 이족보행을 하지만 이동욱에게 시연을 할 때는 유일하게 하반신이 연기처럼 변하여 빠르게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덩치는 보통 사람의 3 배에 달하고, 총탄으로도 뚫리지 않는 섬유질의 피부, 뜨거운 김이 솟아나는 고릴라같은 검은색 육체, 어마무시한 완력과 잔인함으로 공개일 발표 예고편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다. 사실상 본작의 재앙 그 자체인 존재들. 모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마리의 검은 괴물이 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거의 소멸시키는 행위는 까마귀가 시신을 뜯어먹게 방치하는 티베트 지역의 전통 장례 풍습인 조장이 모티브로 보인다.

오직 고지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여타 다른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등장할 때에도 박정자 시연 때 군중들 틈이 아닌 박정자의 집 안쪽 문에서 튀어나온 것, 김영석 시연 때 좌석을 가득 채운 참관인들 사이가 아닌 무대 조명이 잠시 꺼진 사이 스테이지 위에서 조용히 나타난 것 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방향 말고 웬만하면 허공이나 사람이 적은 곳에서 나타난다.

다만 3 화에서 진경훈이 총격을 가했을 때나 6 화에서 배영재와 민혜진이 대항하는 등의 제 3 자에 의한 시연 방해 행동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공격을 가하기도 하나, 역시 한 대만 때리거나 쳐날려서 제압하는 정도로만 한다. 하지만 주변 건조물이나 차들이 시연에 방해가 된다면 모조리 부숴버리며 이는 인파도 예외가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시연이 발생하면 인명피해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시연 대상자를 쫓아가며 주변을 초토화 시키기 때문에 시연이 발생한 장소는 무조건 아수라장이 된다.

1 화에서 첫 등장 했을 때 달리기 속도가 도망치는 주명훈과 엇비슷한 점이나, 사자의 주먹이나 손아귀를 피하는 장면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근력은 초인적이지만 움직이는 속도까지 초인적으로 빠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때도, 벽에서 이동육을 잡은 채로 미끄러지며 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꼼짝도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

등장할 때마다 항상 셋의 개체가 몰려다니며, 시즌 내내 목적이나 정체가 밝혀진 바가 없다. 작중에서 묘사되는 것을 보면 땅이건 물 속이건 상관없이 시연이 가능하고, 고지를 받고 시연당하기 전 자살한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혼을 소환해 같은 행위를 한다. 이들의 시연을 거친 주검들은 특이하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으로 바뀌어버리고 초반 시연 현장에서도 이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태워죽이는 건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존재들이다.

시연을 당하는 사람들과 근접해 있는 사람들도 사망한다. 배영재, 송소현 부부의 아기에게 고지가 되었는데, 이 부부가 아기와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자 아기를 감싸안은 부부에게 시연을 시행했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니 아기만 따로 시연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고지를 받은 아기가 생존하고, 두 부부가 사망했다. 아기의 시연 부분에서 다소 의아한 점이 있는데 고지를 받은 아기 대신 부모에게 시연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고지 대상이 아무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었어도 사자들이 시연 대상을 잘못 찾는 법은 없었다. 거기다 배영재 부부가 서로가 떨어지지 못하게 묶고 있긴 했어도 사자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강제로 떼어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시연 대상이 아닌 존재를 둘이나 희생 시켰다는 것이 의아하다. 원래 시연 대상이었던 아기는 추후에 다시 고지가 되는 형식인지 아니면 시연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건 직후 박정자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큰 떡밥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즌 2 에서도 같이 시연을

받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살촉들이 시연을 당하는 사람을 감싸는데 이들도 모두 배영재, 송소현 부부처럼 분사했다.

시즌 2 마지막 부분에서야 아기의 시연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된다. 부모가 대신 시연당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시연당하면서 부모가 함께 희생이 되었고 시연 직후 아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박정자, 정진수 이전에 첫 번째 부활자였던 것. 아이러니하게도 배영재, 송소현 부부가 아기를 살리려 하지 않고 놔뒀다면 가족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시즌 3 가 제작된다면 새로운 떡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석 작가와 주호민이 함께 한 인터뷰에서 최규석이 사자가 항상 3 인조로 다니는 건 맞지만, 나올 때마다 다른 개체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고지만 처리하고 퇴장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 곳에 두 무리가 동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시즌 2 에서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 체형이 근육질에서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바뀌었고, 촉수가 생겼으며 얼굴도 눈코입이 기괴하게 살짝 뒤틀려 있는 등 보다 원작 웹툰의 사자들의 디자인과 유사해졌다. 또한 천세형의 회상 장면에서는 뾰족하게 생긴 팔다리를 이용하여 마치 거미처럼 보행하는 사자도 잠깐이지만 등장한다. 디자인이 바뀐 이유는 시즌 1 때 CG 를 담당한 회사가 망하고 새 회사와 협업해서라고 한다.

## 9.2. 천사

드라마의 시작이자 만악의 근원. 원작보다 굉장히 호러스럽게 연출되어 천사란 말이 안 어울리는 위압감과 공포를 보여준다. 물론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늘(天)의 심부름꾼(使)라는 뜻이고 영어의 Angel 도 사신, 사절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앙겔로스(ο Ἀγγελος)'에서 나온 말이니, 그들이 하는 역할이 천사의 역할인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 언제 지옥에 끌려가는지 공지하고 사라진다. 사실상 이걸 조우하는 순간 자신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우주적인 공포와 함께 영원토록 ‘죄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새진리회의 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 가족들 역시 새진리회와 화살촉이 ‘죄인의 가족’이라며 신상을 털고 조리를 돌릴 운명이 된다. 박정자 사건으로 전국의 방송을 통해 퍼지면서 죄를 지으면 사자들에게 죽고 이를 예견한 새진리회를 믿으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두려움에 의해 국민의 과반수가 자발적으로 새진리회의

광신도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불식시켜야 하는 정부와 경찰도 튼튼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자들에게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절반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새진리회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 된다.

천사라는 호칭도 정진수가 임의로 붙인 호칭이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듯 하다. 보통 며칠, 몇 주, 몇 달 단위로 고지하지만 가끔 아주 먼 미래나 아주 가까운 미래를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사의 고지에는 '지옥에 간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는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진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해석을 은근슬쩍 끼워넣은 것이 대중적으로 먹히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의 가장 의문점이 많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방금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지옥에 간다고 공지하여서 천사의 고지가 죄인만 선고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기준도 없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고지한다는 사실이 작 후반부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러모로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작품 안에서나 작품 밖에서나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즌 2에서는 전국적인 대규모 고지로 모습을 비춘 걸로 보아 다수의 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옥 시리즈의 첫 작품인 지옥: 두개의 삶에서도 천사가 여럿 존재한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이를 차용한 듯 하다.

### 9.3. 지옥의 화염사자

## 3. 줄거리

### 3.1. 1 편

#### 정진수의 부활과 고통

정진수는 지옥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며 고통을 겪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는 환영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 새진리회와 화살촉의 갈등

한편, 새진리회는 정진수 의장이 사라진 후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화살촉의 리더 바람개비는 새진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테러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립니다.

## 정부의 개입과 박정자의 부활

사회 혼란을 수습하려는 정부는 정무수석 이수경(문소리 분)을 통해 새진리회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수경은 새진리회의 세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연을 당했다가 부활한 박정자(김신록 분)를 새로운 상징으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박정자는 부활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민혜진과 소도의 활동

한편, 소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민혜진(김현주 분)은 새진리회에 맞서 고지를 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방을 숨기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1 에서 부모의 희생으로 시연을 피해 살아남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그녀는 여전히 새진리회와 화살촉의 위협 속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3.2. 2 편

### 정진수의 부활과 고통

정진수는 부활 이후에도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며, 거울을 볼 때마다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는 환영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박정자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 새진리회의 내부 갈등

새진리회는 정진수의 부활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2 대 의장 김정철은 정진수의 부활을 교단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외부 세력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 화살촉의 활동과 오지원의 역할

한편, 화살촉의 리더인 오 지원은 새진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테러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 지원은 과거 박정자의 시연을 목격한 이후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화살촉에 깊이 빠져들었고, 현재는 조직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민혜진과 소도의 대응

소도의 변호사 민혜진은 부활한 박정자를 보호하고, 그녀를 통해 새진리회의 교리를 반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민혜진은 박정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소도 구성원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준비합니다.

## 박정자의 부활과 사회적 파장

박정자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부활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려는 새진리회와, 이를 부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소도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 정부의 개입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무수석 이수경을 중심으로 새진리회와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수경은 새진리회의 세력을 이용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박정자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 정진수와 박정자의 만남

에피소드의 후반부에서는 정진수가 박정자를 만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과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박정자와의 대화를 원하지만, 새진리회와 화살촉, 소도의 각 세력이 이를 저지하려 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 3.3. 3 편

## 정진수의 고통과 천세형과의 만남

부활한 정진수는 지옥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현실에서도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는 환영을 경험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천세형(임성재 분)과의 관계를 통해 탈출을 모색합니다. 천세형은 과거 아내 오지원(문근영 분)이 화살촉에 심취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험이 있어, 정진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 박정자에 대한 새진리회의 압박

한편, 새진리회 2대 의장 김정철은 부활한 박정자(김신록 분)를 이용해 교단의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는 박정자를 협박하여 '새 의도'를 전달하도록 강요합니다. 박정자는 아이들에 대한 위협에 굴복하여 새진리회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 소도의 내부 갈등과 민혜진의 역할

소도는 부활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민혜진(김현주 분)은 부활한 박정자를 구출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소도 내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천세형의 과거와 정진수의 탈출

천세형은 정진수를 소도에 인계하려 하지만, 정진수는 그의 악점을 파고들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천세형의 과거와 아내 오지원의 이야기가 드러나며, 그의 내면 갈등이 부각됩니다. 결국 천세형은 정진수의 설득에 넘어가 그를 화살촉의 리더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 3.4. 4 편

#### 새진리회의 대부흥회 준비

새진리회는 박정자의 부활을 이용해 교단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대규모 대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박정자는 이 행사에서 '새 의도'를 발표하도록 압박받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인사인 정무수석 이수경(문소리 분)은 이 계획에 깊이 관여하며, 박정자의 연설 내용과 의상까지 세세하게 조율합니다.

## 정진수와 화살촉의 움직임

한편, 부활한 정진수(김성철 분)는 박정자를 만나기 위해 화살촉의 리더 바람개비와 접촉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 사실을 숨기고 박정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려 합니다. 정진수는 화살촉을 조종해 새진리회 내부로 침투하려는 계획을 세우며, 이를 위해 화살촉 단원들을 설득합니다.

## 민혜진과 소도의 계획

소도의 변호사 민혜진(김현주 분)은 박정자를 구출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그러나 소도 내부에서는 박정자 구출보다는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견이 대두되며, 민혜진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에 반발합니다. 결국 그녀는 동료 김성집과 함께 박정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 천세형의 희생

정진수를 도와주던 천세형(임성재 분)은 그의 계획에 따라 화살촉의 아지트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정진수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천세형을 제거하려 하고, 결국 천세형은 화살촉 단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 대부흥회에서의 충돌

대부흥회 당일, 박정자가 무대에 올라 '새 의도'를 발표하려는 순간, 정진수와 화살촉, 그리고 민혜진과 소도의 세력이 각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각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됩니다.

## 3.5. 5 편

### 정무수석 이수경과 소도의 협력

정부의 정무수석 이수경(문소리 분)은 소도 멤버 김성집(홍의준 분)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박정자를 새진리회로부터 빼앗아 오기를 요청합니다. 이수경은 새진리회가 단독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도와의 협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수경의 제안을 거절하던 김성집은 결국 설득되어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 새진리회 본당에서의 충돌

한편, 새진리회 본당에서는 박정자를 지키려는 새진리회와 그녀를 탈취하려는 화살촉, 소도의 세력이 충돌합니다. 화살촉은 정진수(김성철 분)의 지시에 따라 본당에 난입하여 김정철(이동희 분)을 폭행하고, 박정자를 찾으려 합니다. 동시에 민혜진(김현주 분)과 김성집은 소도 일행과 함께 박정자를 구출하기 위해 본당에 잠입합니다.

## 박정자의 구출과 김정철의 최후

혼란 속에서 김정철은 박정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지만, 이수경의 이중적인 지시에 따라 소도 일행에게 박정자를 빼앗깁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철은 화살촉에게 붙잡혀 폭행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천장에 봉황이 나타나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이는 박정자가 예견했던 죽음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 박정자의 예언과 민혜진의 운명

민혜진은 박정자를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박정자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박정자는 민혜진에게 "장난감 코끼리 같은 것이 보이는 곳에서 변호사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며, 민혜진의 운명에 대한 암시를 남깁니다.

## 3.6. 6 편

### 정진수와 박정자의 대면

정진수(김성철 분)는 박정자(김신록 분)를 만나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박정자는 자신이 경험한 지옥이 정진수와 다르며, 그의 내면에 있는 괴물은 바로 자신임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정진수는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 민혜진의 구출 작전과 김성집의 배신

민혜진(김현주 분)은 박정자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도 멤버 김성집(홍의준 분)의 배신으로 위험에 처합니다. 김성집은 박정자를 죽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 하지만, 민혜진은 그를 제압하고 박정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 대규모 고지와 사회의 혼란

정부 고위 인사인 이수경(문소리 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지를 받으면서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이는 기존의 신념 체계를 흔들며,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입니다.

## 박정자의 가족과의 재회

박정자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과 재회하며, 인간의 사랑과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주제인 인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민혜진과 재현의 새로운 시작

민혜진은 고지에서 살아남은 아이 재현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 그에게 가족의 사랑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도덕성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